

송하진 지사 국가예산 활동 광폭 행보

서울=강영희 기자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 출격했다.

국회 상임위 산사를 앞두고 있는 국가예산 안에 전북도의 핵심사업 신규 예산을 반영하고 증액하기 위한 송 지사의 보폭은 어느 때보다 넓었다.

27일 국회를 찾은 그는 국민의힘이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상임위를 집중 공략했다.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상임위 심사에 앞서 송 지사는 전북 신산업지도 완성을 위한 전북도의 현실과 미래 비전을 역설했다.

지난 25일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설득 작업으로 다지기에 나선 데 이어, 송하진 도지사가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에게 예산반영을 강력 건의하며 국회 상임위 단계 국가예산 확보 굳히기에 나선 것이다.

송 지사는 이날 가장 먼저 이채익 문제위 상임위원장을 찾아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반영을 건의하고 '고창·부안 동학농민혁명 성지와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힘 군산시 동행의원원 송석준 국토위 간사를 만나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예타 통과와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을 요구했다. 송 지사는 특히 "새만금 트라이 포트(Tri-Port)의 핵심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올해 기본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고창갯벌과 지역유산인 염전을 연계한 해양생태관광 기반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 등 집중 공략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 등 핵심사업 신규 반영 협조 당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27일 2022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및 상임위원, 예산안 조정 소위원들에게 전라북도 핵심사업에 대한 신규 반영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도 제공

시설 구축사업인 노을, 생태갯벌 플레폼 조성
과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반영도 건의했다.

또한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을 만나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레폼 구축'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예산반영, '농업 기후변화대응 교육기반 구축' 사업비 반영,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의 예타 통과 및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끝으로 산자위원이면서 예결소위원으로

참여가 예상되는 신정훈 의원을 만나 전북의 경제제일 개선과 신산업지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설명하고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레폼 구축'사업비 반영 및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사업'의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는 산단내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사업의 신규 반영을 건의했다.

김성주 의원, 중앙-권역-지역센터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 구축 시동

27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심뇌혈관질환 사망·생존율 등 지역 간 격차 완화 위한 인프라구축에 최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의원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을 위한 입법 활동의 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27일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이 추진 중이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008년부터 지정·운영하여 현재 14개 권역센터를 통해 집중 전문치료 체계를 구축하면서, 24시간 진료체계, 응급이송,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초 병원으로의 이송과 적절한 전문진료 실시를 위한 인프라가 중요함에도 접근성을 갖춘 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건강 격차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대응책 바리 등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허혈성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용어를 변경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했다.

김성주 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심뇌혈관질환의 사망·생존율 등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법안 심의 및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정세균 전 총리 행정고시 폐지 제안 환영

우리사회 불평등 해소, 성장동력 유지 위한 공공부문 혁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김동연 전 부총리의 행정고시 폐지 제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27일 전날 1호 공약으로 밝힌 김 전 부총리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혁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5급 행정고시 폐지 공약은 정 전 총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

정 전 총리는 "지금까지 행정고시 제도는 계층 상승의 사다리, 유능한 인재의 채용 등 긍정적 기능을 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



화로 인해 비고시 출신의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봉쇄되고 있다"고 부작용을 설명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특히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건너뛰게 해 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없애고, 공정이 담보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에 혁신의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친화적 조직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진영을 뛰어넘어 공공부문의 혁신 방안에 대해 진지한 모색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전 총리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만나 "원팀을 만드는 일이 승리의 출발점"이라면서 "꼭 원팀을 만들어 승리하자"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보다 당을 먼저 생각하시는 모습에 역시 총리님의 큰 품을 느꼈다. 용광로 선대위로 뿔뿔 뭉쳐서 4기 민주정부 반드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주민 복지발전·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공로

전주시의회 박윤정, 최명철 의원 주민 감사장 받아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비례대표)이 27일 예코시티 더샵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역복지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및 생태공원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박 의원은 평소 남다른 사명감과 신념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과 민생해결을 위해 힘써왔다.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를 위한 아파트 진입로 개선 및 거주지 인근의 생태공원인 세병공원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박 의원은 "지역의 어려움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전주시의회 최명철 의원(서신동)도 서신동 우신아파트 1·2·3차 입주자 주민들로부터 지역사회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최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에 다방면으로 헌신해 왔으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며 임주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의원은 "시의원의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북정권 기자

새전북이 쓰면, 대한민국이 입습니다!

제보전화 063) 230-5850 063) 230-5821 063)230-5840

농협60주년
60th Anniversary

함께하는
100년 농협

창간21주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인, 우리 농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도 잘 삽니다.

농업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세상이 되도록
농협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농업, 농촌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NH 농협

농협중앙회임실군지부 지부장 이희운 / 오수관촌농협 조합장 정철석 / 임실농협 조합장 최동선 / 임실축협 조합장 한득수 / 임실치즈농협 조합장 설동섭